##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 미, 6년 만에 역성장 "2분기엔 -50%로 추락할 수도"

미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4.8%로 추락했다. 글로 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말 이후 분기 하락률로는 최대다.

지난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속보치)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연율)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1분기 이후 6년 만의 첫 마이너스(-)분기 성장률이며, 2008년 4분기(-8.4%) 이후 가장 가파른 감소율이다. 작년 4분기에는 2.1% 증가했다.

상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각 주정부가 자택대피령을 내리면서 직장과 학교가 문을 닫고 소비자가 지출을 줄인 게 수요 급감으로 이어졌다." 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은 7.6%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한 미국 경제의 충격은 진행형이다. 조지 아,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NIAID) 소장의 말처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재가동" 이불가피하다.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은 최대 -50%에 달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월가는 3월 중순 시작된 경제 봉쇄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것은 2분기로 보고 있다. JP모간은 2분기 성장률을 −40% 로 예상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34% ●모건스탠리 −37.9% ●에버코어ISI는 −50% 등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는 GDP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미국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3분기부터는 회복이 예상된다. CNBC가지난 28일 경제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올 2분기미국 GDP가 -24%로 급락한뒤 3분기에는 4.7%로 반등할 것으로 관측했다.

## SK, 조지아주에 제 2 배터리 공장 건설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서도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2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조지아주에 제2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7억2,700만 달러(약 8,900억 원)를 SK이노베이션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 (SKBA)에 출자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제2공장 건설비는 총 15억 달러(1조8천억 원)이다.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착공한 제1 공장을 포함해 추가로 제2 공장까지 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은 총 3조 원에 이른다. 제2 공장은 11.7GWh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7월 착공해 2023년 양산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SK의 밤 행사에서 'SK는 북미 사업 확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

하며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일자리 6,000여개를 만들수 있는 최대 5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라고 말한 생산시설 확보의 2단계"라며 "최태원 회장이 발표한 비전이 현실화한다."고 설명했다.

제2 공장까지 준공하면 SK이노베이션은 1공장 9.8GWh, 2공장 11.7GWh 등 연간 21.5GWh 규모의 배터리(이차전지)를 생산하게 된다. 전 세계 생산 규모는 연간 71GWh로 2025년까지 100GWh 규모의 세계적 배터리 업체로 성장하겠다는 중장기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서는 셈이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톱플레이어 수준의 생산 규모를 확보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확보한 수주 물량은 500GWh수준이다.

## 백만장자 '매수 이르다' VS 개미 '공격 베팅'

코로나19 팬데믹에 자유낙하를 연출했던 뉴욕증시가 반등한 가운데 백만장자와 개미들의 움직임이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전세계 백만 장자들이 주식 매입이 이르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개미들은 적극적인 주식 매매에 뛰어 든 것이다.

지난 30일 '뉴스핌' 이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가 전날 발표한 서베이 결과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운용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 4,000여 명 가운데 61%의 응답자가 주식매입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구촌 경제의 충격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16%의 응답자는 베어마켓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매수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반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진 단을 내린 백만장자는 23%에 그쳤다.

이와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 미들의 주식 매입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지 난해부터 이어진 온라인 증권사의 수수료 폐지 와 연초 이후 주가 폭락이 저가 매수 심리를 부 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에 뛰어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초보자라고 WSJ은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지난달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했다는 해석이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로 후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된 한편 2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에 무게가실리는 만큼 백만장자들의 전략이 적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